

■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 도민사회 불안감 확산

# “혹시 나도?”... 선별진료소 방문 급증

### 제주대학병원·한라병원 “발열 등 증상자 검사 많아”

제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급증했다.

지난 21일 오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제주한라병원. 코로나19 확진자인 해군 A(22)씨가 진료를 받았던 선별진료소는 폐쇄돼 있었지만, 바로 옆 권역응급의료센터 정문 앞에는 임시로 안심진료소가 설치돼 선별진료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안심진료소 앞에는 제주도민 2명과 중국인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외에도 병원 정문 출입구에는 진료를 받으려는 방문객들이 입구에 설치된 천막에서 발열검사를 받고 있었다.

도민 B(58)씨는 “별다른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업무차 대구를 다녀온 일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료를 보러 왔다”며 “휴가차 대구를 다녀왔던 군인이 제주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나와서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제주대학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검진을 위해 진료소를 찾은 방문객은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다.

한라병원은 첫 확진자 A씨가 다녀간 선별진료소를 소독차원에서 운영

을 중단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점검을 거쳐 22일부터 재운영하고 있다. 임시로 설치됐던 안심진료소도 점검을 거쳐 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한라병원 관계자는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조금이라도 발열·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병원 출입 자체를 금지하고 진료소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어 검진 인원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검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선별진료소가 재운영해도 안심진료소도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지역 등을 방문했던 환자의 병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체 조사를 실시해 최근 대구 지역을 방문한 직원 등도 격리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병원 관계자는 “일반 병원에서 발열 등의 증상이 보이

면 선별진료소로 보내고 있어 검진 받는 환자가 급증했다”며 “첫 확진자가 나온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방문객에 대해 병원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의료원 등 도내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면회 자체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코로나19” 청정지역이던 제주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자 도민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대학병원과 한라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는 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확진자 발생 이전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기자

## 도내 신천지교회 관련시설 7곳 자진폐쇄

### 도, 종교시설 788곳 대상 코로나19 확산 방지 공문



폐쇄된 도내 한 신천지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신천지교회’가 지목된 가운데 도내 모든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이 자진 폐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교회, 선교센터, 복음방 등 도내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에 대해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제주도 5곳, 서귀포시 2곳 등 총 7곳이 폐쇄된 상태라고 23일 밝혔다.

당초 도내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은 9곳으로 알려졌지만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용도별로 교회 2곳, 선교센터 1곳, 교리교실 1곳, 공부방(주정) 2곳, 연수원(주정) 1곳 등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바로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가한 신도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내 종교시설 788곳(개신교 420곳·불교 293곳·천주교 28곳·원불교 18곳·수운교 15곳·기타 14곳)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종교시설에서도 감염병 안전 예방지침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종교시

설 내 예방수칙 게시 및 전파 ▷예배·법회 등 집회 참석자 가급적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시설 종사자 위생관리 철저 ▷발열 등 증상 발생시 관계기관(보건소 등)에 즉시 신고 및 진단검사 안대 등을 당부했다.

한편 천주교 제주교구(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각 본당에 전파했다.

제주교구는 기침 및 발열과 같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신자의 경우 확진 유무에 관계 없이 미사에 참여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와 성경봉독 등으로 주일미사 의무를 대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 약조건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보고 감염병 퇴치를 위해 노력중인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코로나19’ 확진자 문건 유출자는 공무원

### 양윤경 서귀포시장 “응분의 조치할 것” 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의 실명 등이 담긴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사람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 대응 기자회견에서 “지난 2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 참가한 서귀포시청 모 간부 공무원이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정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도민 여러분,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 등) 정확한 유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문서는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 경로’라는 제목의 내

부 문건으로 지난 22일 오전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 문건에는 도내 2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22·여)씨의 16일부터 21일까지 시간대별 이동 동선과 함께 A씨가 탔던 택시의 번호판, A씨와 접촉한 이들의 실명, A씨의 옷차림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도 문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로고와 함께 ‘본 문서는 제주도 중요문서로 무단 유출을 금지합니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한편 제주도는 2번째 확진자가 서귀포 열린병원 인근에 있는 한 약국을 방문해 폐쇄 조치됐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 이스라엘 성지순례 도민 37명 전원 격리

제주도는 22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도민들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 북부권 천주교 신도 등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민 37명이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나섰다. 다만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경북 북부권 성지순례단과는 별도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북 북부권 성지순례단에도 제주도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 경찰 ‘코로나19’ 방역 강화

제주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의심자 등 발생 시 대책’ 관련 회의를 열고 도내 모든 경찰관서에서 경찰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문으로만 출입 가능하며 나머지 출입문은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국방부가 이날 장병 휴가·외출 등 통제 지침을 발표하자, 경찰청도 의무경찰에 대한 휴가 및 외출·외박 등 영외활동을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할 수 없도록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코로나19’ 우려 집회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우려해 지난 주말 도내서 열기로 한 집회들이 잇따라 연기됐다.

23일 도내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경마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결의대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연기됐다. 아울러 같은날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제주 제2공항 반대 문화제도 같은 이유로 연기됐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나 집회를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잡초의 경감,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높은 저장성,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영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 감골묘목

##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 4년생  
성전온주 ..... 4년생  
황금향 ..... 4년생  
병자묘 1년생, 수고 70cm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 한림종묘

010-3690-2453

그랜드보청기

경자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 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려주세요!

##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캠페인

-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하기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